



팀 장 : 행정5급 김충훈 ☎ 5152  
 담당자 : 시간라급 김은주 ☎ 5357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과 연계]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1. 11. 26.(금) 14:30~17:00 / 흥성문화원 공연장(1층)
-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 : 이종화 의원)
- (주 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참 석) 71명(관련 단체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 보고서 ||

I. 총 평	.....	1
II. 주요 토론내용	.....	2
① 주제발표(1인)	.....	2
② 지정토론(4인)	.....	4
③ 집행부 의견	.....	6
④ 자유토론	.....	7
⑤ 마무리 말씀	.....	7
III. 토론회 과제 및 결론	.....	8
IV. 후속조치	.....	8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흥성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I 총 평

❖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내 도민, 전문가, 관련 학계,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흥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행정문화위원회 이중화 의원 신청으로 마련되었음.

○ 원도심이 신도심과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정주 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신도심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함.

○ 또한 주민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원도심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연계형 테마사업, 오감 만족 여행, 다크투어리즘 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마지막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을 도 행정부·관계기관 등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 II 주요 토론내용

### 1 주제발표(1인)

□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정주 환경 격차 해소

- 원도심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충진식 개발과 ‘2040 흥성군 기본계획’에 따라 흥성의 순환도로망이 구축되는 만큼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함.
- 또한 수요가 많은 간선축에 급행 노선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여 생활 서비스 및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주 인구 외 관광을 통한 체류 인구 확대 방안과 지방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현재 충남혁신도시는 내년이면 인구가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됨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정책 발표에 따라 혁신도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추진사업이 발생하는 만큼 원도심은 혁신도시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자족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충남혁신도시 투자 선도지구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고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기업입지 여건을 개선해야 함.
-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청남도 주도로 이전기관, 지역 대학, 기업 등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 정보공유와 교류 지원을 확대해야 함.

### ○ 연계교통망 확충

- 크게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계획에 포함된 충남 철도 사업(홍성역~공주 KTX역~서대전역 70km, 1조 5,680억 원)의 추진으로 교통망을 확충함.
- 작게는 홍성읍과 충남혁신도시 간 간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홍성읍 자전거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순환 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 신도심은 행정도시로 원도심은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이동 흐름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등 역사문화 관광 서비스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천년의 매력을 간직한 홍주 원도심이 정비되는 단계에서 공동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프로모션과 관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상생협력체계 구축

- 혁신도시 지구가 지정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구가 구성됨.
- 이에 따라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협의체, 혁신도시 사회적 경제조직 등 구성·운영, 상생발전기금 조성이 의무화됨.
- 또한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확대로 홍성이 포함되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동반성장 기반이 확보됨.
- 따라서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제 강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 등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② 지정토론(4인)

### ① 이경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 주민과 행정의 협업 강화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주민들이 모여 강력한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행정과 협력해야 함.
- 또한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협력 네트워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운영조직’으로 주축이 되어야 함.

#### ○ 원도심 정책지원 확대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적극적이고 실행력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재원 방안이 있어야 함.

### ②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관광 협력 사업 추진

- K-POP을 활용한 한류 관계인구 확장과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 연계형 테마관광 사업 전개

- 내포문화 연계 테마관광 사업 추진 :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및 역사적 사건 등에 기반한 브랜드를 만들고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전개해야 함.
- 관방유적 네트워크 사업 : 스코틀랜드 성곽협회, 일본 성곽협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통해서 내포문화권 관방문화 자원의 세계화를 도모해야 함.
- 근대 한국불교 성지 네트워크사업 : 내포지역은 근대 한국불교가 일어난 곳인 만큼 이를 활용해 종교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 ○ 라이프스타일 관광 활성화

- 홍성 및 내포신도시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음.
- 원도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 기억을 찾아 유·무형의 형태로 아카이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홍성을 대표했던 거리 ‘홍고통’ 활성화를 위한 체험 행사, 음식 특화상점과 청년 푸드트럭 등의 유치, 홍성 출신 유명 인물을 활용한 벽화거리 및 버스킹 공간으로 조성하여 방문 매력을 증진해야 함.

### ③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 상생협력 약속

-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로 묶어진 하나의 지역이므로 두 지역 간 상생협력 시 국가사업 및 국비 확보, 지역사업 확보 등이 수월함.
- 증가한 지방세수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원도심 발전기금 조성

-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현실임.
- 이에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시행할 기금사업을 두 지자체 간 협의로 정하거나, 기금을 균등 배분하여 양 지자체가 스스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제안함.

### ④ 신영식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재무국장)

#### ○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한 과거로의 여행

-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생 등 인물들의 생가지체험과 홍주읍성,

의사총 천주교 순례지 등 비극적 역사장소, 재난과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현장을 돌아보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을 제안함.

#### ○ 내포문화숲길 등 현재로의 여행

- 국가 숲길로 지정받은 내포문화숲길과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 죽도 둘레길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함.

#### ○ 오감 만족 여행으로 미래로의 여행

-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성 복합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과 연계한 미디어아트 전시관, 디지털 실감 영상 및 AR·VR, 메타버스 콘텐츠관에서의 가상현실을 체험하며, K팝 고등학교 등과 연계한, 공연 및 전국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홍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③ 집행부 의견

[육안수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

- 충남도는 혁신도시에 따른 홍성과 예산의 상생을 위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중에 있음.
- 또한 내년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자전거 도로망 확충을 위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구도심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임.
- 올해 12월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시간적 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원도심과 신도심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도 노력할 것임.

## 4 자유토론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원도심은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도립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면 신도심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함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빈집을 예술이 집적되는 공간, 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실제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청년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중앙정부의 사업을 공모하거나 도와 시군의 지원을 통해 원도심에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신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
- 이처럼 내포문화권의 예술진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함.

## 5 마무리 말씀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의원]

- 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스며있는 홍성군의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신도심과 공동 발전해야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행정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임.
- 도의회에서도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되고 신도심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 높여주었음.

## III 토론회 과제 및 결론

### <과 제>

1. 원도심과 신도심의 정주 환경 격차 해소
2. 원도심의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연계 교통망 확충
4.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5. 신도심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결 과>

1. 주민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원도심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
2. 원도심의 역사·문화·예술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3.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원도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홍성군청

-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1식. 끝.

**붙임 1** | **의정토론회 현장 사진**



[단체 사진]



[인사 말씀]



[축사]



[토론 모습 1]



[토론 모습 2]



[마무리 말씀]

**붙임 2** | **언론보도 현황(충청투데이 외 31건)**

연번	언론사별	제 목	비고
신문보도		7건	
1	충청투데이	충남도의회, 원도심-신도심 상생발전 방안 모색	
2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홍성 원도심 공동화 극복방안	
3	신아일보	원도심-신도심 상생 모색 의정토론회	
4	충청타임즈	원도심-신도심 상생 방안 '열띤 논의'	
5	동양일보	충남도의회, 원도심-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6	금강일보	충남도의회, 홍성 원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방안 논의	
7	중부매일	협업·발전기금-원도심과 신도심 상생발전 방안 모색	

**신아일보**

2021년 11월 29일 (월)  
전국 08면



충남도의회가 26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원도심·신도심 상생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요청으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경진 공주대

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윤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식 홍성군발전협의회 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에 나선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주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교통망 확충 △문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주민과 행정의 협업,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보,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된 세수를 원도심 활성화와 재원으로 사용하는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홍성군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신도심과 공동 발전해야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행정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보/김기홍 기자 press@shinailbo.co.kr

175 X 186 mm

연번	언론사별	제 목	비고
인터넷통신도		24건	
1	시사저치	홍성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발전 모색	
2	아주경제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3	충청일보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4	천지일보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5	C뉴스041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6	세계타임즈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7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8	특급뉴스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9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10	내외일보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11	문화매일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12	뉴스밴드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13	세종방송	충남도의회, 원도심·신도심 상생의 묘수 찾아라	
14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15	백제뉴스	이종화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건설로 홍성 원도심 공동화 심각"	
16	중부매일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17	금강일보	"내포신도시 건설로 홍성 원도심 공동화 심각"	
18	충청타임즈	원도심-신도심 상생 방안 '열띤 논의'	
19	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20	에너지경제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21	충남일보	충남도의회,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 상생 방안 모색	
22	농업경제신문	뿌리내리는 의정토론회...주민 민원 현장서 목소리 듣고 해법 모색 '새 평가'	
23	시사뉴스24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24	유교신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亞洲經濟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충남)허희만 기자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건설로 홍성 원도심 공동화 심각" 정주환경 격차 해소 및 연계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등 제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장면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6일 홍성문화원 공연장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홍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경진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최인호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식 홍성군발전협의회 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오용준 박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정주환경 격차 해소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교통망 확충 △문화관광협력기반 구축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발전 목표 공유 및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홍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유도를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주민과 행정의 협업,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보, 신도시 조성으로 증가된 세수를 원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도는 인구 10만 명의 자족적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포신도시를 건설했으나 목표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수를 기록했고,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적 자원의 가치를 전면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홍성군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신도심과 공동 발전해야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 행정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정토론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1년 11월 26일 (금)

지역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C뉴스041

2021년 11월 27일 (토)

충청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세계타임즈

2021년 11월 26일 (금)

대전/충남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은양신문

2021년 11월 26일 (금)

자치의정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특급뉴스

2021년 11월 26일 (금)

충청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충남도민일보

2021년 11월 26일 (금)

대전/충남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

내외일보

2021년 11월 26일 (금)

대전/충남

충남도의회,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 방안 모색